

東夜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동우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가 초대형 공공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프랑스 현대미술가 다니엘 뷔렌의 작품 '한국의 색 (Les Couleurs au Matin Calme, travail in situ)'이다. 미디어센터의 넓은 유리창을 노랑, 보라, 오렌지, 진빨강, 초록, 터키블루, 파랑, 핑크 8개 색 컬러필름으로 덮었다.

동아미디어그룹 X 더뉴미디어



늦은 밤 신문과 방송 제작을 위해 미디어센터 불을 환하게 밝힌 순간, 역사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중심인 광화문에 원색의 생동감이 넘실거렸다. 길을 가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다.

올해 4월 1일 창간 99주년을 맞은 동아일보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앞두고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1926년 일제 조선총독부를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세운 광화문 사옥은 2000년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라는 뉴 밀레니엄 비전을 담아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100년을 앞둔 지

금, 밝은 꿈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캔버스로 변신했다. 전시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다니엘 뷔렌은 "동아일보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철학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시대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옹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동아일보와의 프로젝트에 흥미와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김재호 사장은 "아트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될 100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제232호 | 2019년 4월 5일 금요일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조동주(편집국) 정지영(편집국) 이미영(미래전략연구소) 이원탁(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신강혁(문화사업본부) 이진걸(경영지원국) 남형주(재경국) 장원재(뉴센테니얼본부) 이기원(편성본부) 신정호(제작본부) 김윤수(보도본부) 강태연(전략기획본부) 김혜성(콘텐츠사업본부) 김우준(경영지원본부) 김민지(동아E&D) 장경국(동아닷컴) 한결(채널A비엔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939)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가 동아미디어센터

밝고 유쾌한 동아미디어센터의 변신

‘다니엘 뷔렌 X 동아미디어그룹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6년 프랑스 파리로 연수를 갔을 때 우리 가족 아지트는 볼로뉴 숲 속 루이뷔통재단미술관이었다. 컬러풀한 유리창을 관통하는 햇빛이 미술관 안으로 곱게 들어왔다. 다니엘 뷔렌이 이 건물에 진행한 외관아트는 행복감을 주는 마법 같았다.

작년 초 뉴센테니얼본부로 와서 100년 기업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떠올린 게 이 미술관과 뷔렌이다. 동아미디어센터는 그의 아트작업을 구현하기에 완벽한 유리건물이다. 현대 미술의 거장 뷔렌이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설치미술 작품 ‘한국의 색’은 그렇게 시작됐다.

뷔렌의 작업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공공예술이다.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우리 동아인들이 눈을 밝혀 지켜온 ‘현장’이었고 동아일보 100년을 가능하게 만든 ‘동아 정신’이었다. 작년 7월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동아미디어센터를 방문한 뷔렌은 “이 건물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척 열심히 일하면서도 분위기가 밝고 편안해 보이네요. 단조로운 광화문 일대에 밝은 기운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햇빛 도심의 서울 한복판이 초대형 예술 공간으로 변신하고, 시민들은 동아미디어센터를 보며 밝고 유쾌한 미래의 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동아미디어센터가 도시 서울의 격을 높여 광화문 청계천 관광 루트에서 중요한 관광 자원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도 뒤따랐다.

파리 뉴욕 밀라노 도쿄 등에 이어 국내에 첫 공개 되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1년여를 ‘입 무겁게’ 일했다. 미리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구청에 직접 다니며 필요한 행정처리를 했다. 예술가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일일이 맞춰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2019년부터 크리에이티브랩팀이 신설되고 든든한 동지 손가인 기자가 합류했다. 손 기자가 보낸 3개월은 어땠을까.

“프로젝트가 굉장히 신선했다. 일하며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아일보가 이런 시도를 한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특히 뷔렌을 아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환영했다. 야간 촬영을 위해 사육 층층을 뛰어다니며 블라인드를 걷고 청계광장에 나갔던 날, 우리 건물은 색색이 빛나는 자개 공예품 같았다. 뷔렌이 왜 ‘한국의 색’으로 이름 붙였는지 알 것 같았다. 평범하다고 느꼈던 첫 생각도 사라졌다. 그간의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아미디어그룹 내 ‘개방적 협업’의 저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특히 우리 본부와 미디어플러스팀, 각 계열사 SNS 실무진은 실시간으로 각 플랫폼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논의해 만들어 냈다. 즐기듯 머리를 맞대면 모두를 놀라게 할 새로운 타칭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났다. 파격적인 프로젝트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신 동아 가족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뉴센테니얼본부 크리에이티브랩팀 김선미



노랑, 보라, 오렌지, 진빨강, 초록, 터키블루, 파랑, 핑크 8개 ‘한국의 색’을 입고 생동감 넘치는 동아미디어센터 외부를 바라본 모습.



프랑스 현대미술가 다니엘 뷔렌이 3월 20일 동아미디어센터 1층에 마련된 대형 캔버스에 축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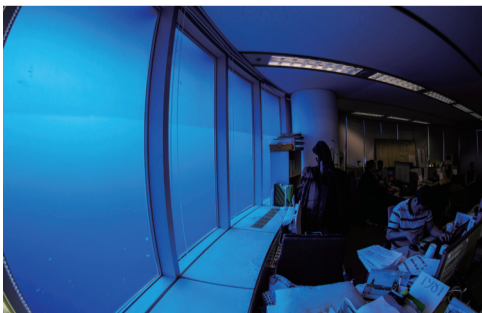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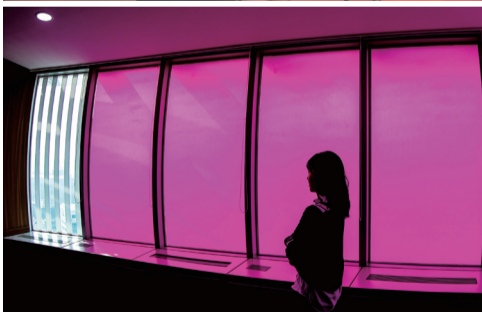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구경 가자”는 댓글이 달렸다.

한 동아 가족은 “멀리서 봐도 멋있다. 언론사가 기사가 아니어도 감성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감동적으로 알려줬다”고 말했다. 한 일간지 간부가 연락을 해와 “사장이 불러 동아일보 건물 모습 바뀐 걸 봤느냐. 사옥이 아름다워진 건 물론이고 세종로 사거리와 청계천 입구까지 다 환해진 것 같다. 어떻게 한 것인지 좀 알아보라고 했다”며 꼬치꼬치 취재하는 일도 있었다.

3월 20일 뷔렌이 참석한 오픈 행사에서는 동아 가족들이 1층 로비를 가득 메웠다. 로비에 마련한 사인보드에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알록달록한 축하 스티커와 함께 “동아가족 모두 브라보(뷔렌)” “더 아름다운 건물, 더 빛나는 동아(박원순 서울시장)” “동아일보 300년 가즈아” “♥ I ♥ DONG-A” 등 다양한 응원의 글이 사인보드에 남았다.

뉴센테니얼본부 생크뷰처팀 김성규
크리에이티브랩팀 손가인

내부에서 바라본 ‘한국의 색’



“광화문은
특별한 공간,
100년의 출발점”

김재호 사장

“유연하고
열린 조직이
인상적”

다니엘 뷔렌

“감성적 기여, 감동적”

사람은 옷발, 운동은 장비발, 건물은 뭘까. 정답은 조 명발이었다. 어두운 클럽의 화려한 조명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바꾸어 놓듯 다니엘 뷔렌의 ‘한국의 색’ 야 경은 광화문 건물들 사이에서 동아미디어센터의 외 경을 특별하게 바꿔 놓았다.

동아미디어센터 안에서, 예술작품 속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도 특별했다. 구성원 사이에 이런 대화가 많이 들렸다. “너희 층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야” “우리 층은 보라색인데.” “분위기 독특하겠구나.”

색다른 방식의 홍보도 진행했다. 3월 4일자 동아 일보 1면에는 ‘동아미디어센터의 유쾌한 변신 D-16 :D’라는 문구와 함께 작품을 상징하는 색과 줄무늬 만 노출하는 티저 콘텐츠를 내보냈다. 미디어플러스 팀은 인스타그램 계정(@colorsofukorea)을 개설해 작품과 작가를 알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개설하자마자 400명에 가까운 팔로워들이 모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다니엘뷔렌 등 해시태그를 달며 달라진 동아미디어센터 모습을 공유했다. “이번 주말

‘동아다음’과 ‘기자다음’ 실천해야

김재호 사장 창간 99주년 기념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김재호 사장은 4월 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 큐브에서 열린 동아일보 창간 99주년 기념식에서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조직이 사명감을 갖고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를 갖추어 수 있도록 언론사가 해야 할 몫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 100년의 존재 이유

창간 기념식에서 김 사장은 100년 전 창간의 주역들을 떠올렸다. 3·1운동에서 힘을 얻은 창간 주역들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해 여름부터 창간을 준비했다. 김 사장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표현 기관을 만들고 지켜내려면 지금으로서는 가능하기조차 힘든 용기와 열정, 희생이 필요했다”며 “4차례에 걸친 정간과 폐간을 겪었던 동아일보의 끊어짐과 이어짐은 민족지를 없

애려는 일제와 이에 맞선 동아정신의 부딪힘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00년의 의미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김 사장은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고, 때로는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동아일보를 지켜온 선배들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아 100년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동아다음과 기자다음’을 매일같이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비난을 일삼는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짐 없이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래를 향한 약속

김 사장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길을 제시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 이유를 다룬 이날 동아일보 1면 기사를 언급하면서 “민간영역은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 영역을 이해하고 생각의 간극을 없애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아일보가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 방안까지 모든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우리는 용기와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길을 걸어왔다”며 “시련을 만날 때마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이겨낸 역사는 우리만의 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4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은 이상숙 경남 창원 독자센터 사장, 임용수 남부교판 사장을 비롯해 장기근속 독자센터장 28명과 임직원 22명의 공로패와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동아 100주년을 앞둔 올해 창간기념식에서는 특별 이벤트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1920년 창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아일보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피켓 세리머니를 지켜본 후 ‘미래를 향한 100년’을 다짐하며 다함께 구호를 외쳤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경석**

“책임있는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하는 사회”

“기울어짐 없이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김재호 사장이 4월 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창간 9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채널A 하노이에서 함께 빛났다

2차 북미정상회담 취재현장 막전막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취재팀 협업은 남달랐다. 국내 언론사 중 가장 먼저 하노이 현지에 도착한 채널A 취재팀은 현지답사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 김창선의 비공개 동선을 발 빠르게 취재해 공유했다. 방송과 신문 모두 회담 2주전부터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 낙종한 타사들이 황급히 현지로 취재기자를 보내기도 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들은 베일에 가려져있던 김 위원장의 방문 후보지를 나눠서 취재한 뒤 내용을 공유했다. 어느 매체보다 넓은 취재영역을 자랑했다. 특히 하노이 멜리아 호텔을 취재한 기사(2월 26일자 2면)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취재기자들의 긴밀한 작전이 돋보였다. 사전 취재를 통해 김 위원장의 숙소가 멜리아 호텔로 최종 낙점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지훈 기자는 경비가 최고수준으로 강화되기 직전인 24일 오후 10시 김 위원장 숙소인 22층 스위트룸을 취재하기 위해 호텔에 잠입했다. 이 기사는 비상계단을 통해 17층까지 올라갔다 북한 경호원과 맞닥뜨려 쫓겨났다. 1차 시도에서 실패한 이 기사는 역시 경비원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던 북한 대표단 숙소에 침투하기 위해 호텔 곳곳을 누비던 채널A 백승우 기자와 합세, 숙박객을 가장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 위원장 숙소가 있는 22층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북한 경호원에게 잡혀 내려와야 했지만 두 기자의 잠입시도는 긴박한 기사로 지면을 빛냈다. 채널

A 김남준 기자는 영빈관에 들어가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의 지시를 소위 ‘귀대기’로 취재하며 새로운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채널A 기자들은 점경지역인 동당역, 북한군 묘지 박장, 하이퐁과 할롱베이까지 베트남 북부를 샅샅이 누볐다. 이 결과물은 방송 뿐 아니라 신문에도 함께 실려 지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김 위원장 이름과 맛있는(yummy)의 합성어인 ‘김정염 버거’와 ‘트럼프 버거’, 북한 대표단 하이퐁 시찰 기사는 채널A 기자가 찍은 현장 사진이 그대로 지면에 실리는 등 신방 협업이 빛났다.

‘호안끼엠’을 품은 채널A 스튜디오

2월 25일 첫 현지 생방송을 시작으로 나올 간 방송을 이어간 채널A 현지 스튜디오는 타사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주의 국가의 예측 불허 인허가 절차와 공안의 보안 문제로 타사는 세트를 헐고 새로 짓기를 반복했지만 채널A는 꼼꼼한 준비로 차질 없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북미 회담장과 김 위원장 숙소 등 하노이 담판 중심지인 ‘호안끼엠’ 후수를 배경으로 박정훈, 정하니 앵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신석호 팀장이 출연해 생생한 정보와 심층 분석을 전했다. 제작본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팀도 현지에서 녹화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을 향한 북한 출신 신은하 씨의 절절한 외침은 AP 등에도 보도되며 큰 울림을 줬다.

편집국 정치부 문병기 / 보도본부 정치부 이동은

동아일보 ‘4연패’로! 채널A ‘첫 우승’으로!



“한 사람만 따라 붙어. 성근아 걸어내.”

동아일보 축구팀 김성모 선수가 드리블을 하며 채널A 진영 쪽으로 들어오자 채널A 오영룡 선수가 소리 질러 수비라인을 정비했다. 3월 18일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채널A와 동아일보 축구팀의 연습경기. 채널A와 동아일보 축구팀은 3월 초부터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실전 같은 연습경기로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식이다.

‘신방 함께 축구’를 통해 채널A와 동아일보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채널A는 최근 전력을 크게 보강해 대회 최고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패기를 앞세워 첫 우승 도전에 나선다. 동아일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승후보 0순위다. 2016년부터 대회 3연패를 이뤘고, 2020년 동아일보 100주년까지 5연패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축구대회는 4월 20일 킥오프를 시작으로 21, 27일 열린다. 부전승으로 2차전에 안착해 있는 동아일보는 YTN-뉴스핌 중 승자와 첫 경기를 갖는다. 채널A는 MTN과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 서울신문과 브릿지경제 승자와 대결한다. 양 팀이 승승장구하면 4월 27일 4강전에서 만난다.

채널A 축구팀(보도본부 정치부) 손영일

2차 북미 정상회담장 등 베트남 하노이 담판의 중심지인 ‘호안끼엠’ 후수를 배경으로 마련된 채널A 스튜디오. 박정훈 앵커(오른쪽), 이동은 기자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스튜디오 앞에는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은 조형물이 놓여있다.

서울국제마라톤, 확 젊어졌네!

30대 참가자수, 40-50대 추월...
여성 33% - 외국인 49% 급증

3월 17일 열린 2019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0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각종 기록이 쏟아져 나와 역시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대회임을 입증했다. 66개국 3만85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다 인원 기록도 세웠다. 국제 남자부 부문은 토마스 키플라갓 로노(케냐)가 2시간6분00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여자부 안슬기는 지난 해 김도연이 세운 한국 신기록 2시간25분41초 경신에는 실패했지만 2시간27분28초로 우승하며 2020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미세먼지 우려 말끔히 씻다

사무국은 3월 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고민이 컸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연일 미세먼지 뉴스를 보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운영 방안을 강구했다. 지난해보다 물과 이온음료를 참가자 통계 대비 2.5배로 준비했다. 대회당일 새벽엔 코스 전 구간 물청소를 실시해 먼지 발생을 최소화했다. 살수차를 동원한 물청소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도로가 얼 수 있어 대회당일 새벽까지 결정을 미뤄야 했다. 완주한 참가자 전원에게 가글액을 제공했다.

Young&Woman

30대 참가자가 처음으로 40대, 50대를 추월했다. 20대는 20.8%로 2030이 44.9%를 차지했다. 확실히 젊어진 동아마라톤대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10K 부문은 30대 이하가 70%에 이른다.

2016년 이전 풀코스 부문만 있던 당시 8%에 불과하던 여성 참가자는 25%로 늘어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32.9% 증가했다. 사무국은 외국인 참가자 유치에 위해 해외 러닝 전문 사이트인 월드 마라톤즈를 통해 적극 홍보했다. 이 결과 외국인 참가자는 지난해 2551명에서 3804명으로 49.2% 급증했다.

10K 부문 참가비는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풀코스와 같은 5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부터 풀코스와 10K 코스를 완전 분리해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췄고, 교통통제 홍보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동아미디어센터 사육 앞을 달려가는 풀코스 참가자들. 2시간27분28초의 기록으로 국내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안슬기 선수. 시상식 후 열린 애프터 콘서트와 채널A 신규 예능프로그램 <굿피플> 팝업 스토어 포토존, 완주 메달 모양의 기록 포토존(시계반대방향)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절대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한 탓이다. 대신 10K 참가자에게 기념품 중 짐백을 추가로 제공했다. 그 결과 풀, 10K, 릴레이 등 모든 참가 부문이 처음으로 조기 마감돼 서울국제마라톤대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마라톤만큼 뜨거운 엑스포 열기

16, 17일 이틀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서울국제마라톤 엑스포에서는 채널A 입체 포토존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채널A의 'A'를 형상화 해 3면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3개의 콘셉트로 만들었다. 4월 초 방영 예정인 예능프로그램 <굿피플>과 채널A가 출시한 패션브랜드 '비트우' 팝업 스토어 포토존은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여성 참가자의 눈길을 끌었다. 완주 메달 모양의 기록 포토존에는 대회 종료 이후에도 줄 서서 촬영을 기다리는 참가자가 많았다.

뉴발란스는 잠실보조경기장 내에 '마라토너 여러분의 완주를 축하합니다' 문구가 새겨진 50m 백월을 제작해 풀코스 참가자들이 피로를 잊을 수 있게 했다. 피니시 지점 1km를 앞두고 뉴발란스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500여 명의 응원 크루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완주를 끝까지 응원했다. 포카리스웨트는 트레이드밀과 질소 샤워 냉동 캡슐을 선보여 완주 후 참가자의 신체기능, 컨디션 조절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상식 후엔 남성 듀오 노라조와 인기 걸그룹 에이프릴이 완주를 축하하는 애프터 콘서트를 펼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숨은 일등공신

서울지방경찰청은 단일 행사 최대 규모인 5000여 명의 경력과 대테러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했다.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는 이른 새벽부터 대회장에서 참가자를 맞이했다. 채널A 중계팀은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생동감 넘치는 중계를 선사했다. 동아일보와 스포츠동아, 동아닷컴 보도팀도 대회 성공에 힘을 모았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박형준

'도시어부'가 편의점에 뒀다

채널A-CU 콜라보레이션



<도시어부>와 CU편의점이 콜라보레이션해 출시한 스낵시리즈 7종.

채널A 간판 예능프로그램 <도시어부>가 편의점에 뒀다. CU 편의점과 콜라보레이션해 3월 14일 해물짜장라면, 해물짜장라면, 어부밥, 젤리, 붕어빵, 어묵바, 햄버거 총 7종의 도시어부 스낵 시리즈를 론칭했다.

'도시어부 스낵 시리즈'는 재미와 맛을 동시에 잡는 것을 목표로 '나만 믿고 먹어봐' 콘셉트로 기획됐다. <도시어부> 시청자들은 낚시대를 위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장면 때문에 해물라면에 대한 애정이 크다. 콘텐츠세일즈팀은 여기에 착안해 해

물짜장과 해물짜장 라면을 만들고 국물에 귀여운 물고기 모양 후레이크를 잔뜩 넣었다. '어부젤리'는 작은 조개와 물고기 사이에 대왕상어 젤리를 찾아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묵어바 어묵바'는 어묵을 물고기 모양으로 빚어내 다른 제품과 차별화 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줄 전망이다.

출시와 함께 카카오톡 실시간 이벤트를 벌이고 식품 기프트콘을 경품으로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김혜성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New face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 학교



최수영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총무팀

- ① 상사가 믿고 일을 맡기고, 업무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신뢰 가는 전문 비서가 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② 요즘 저의 관심사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③ 한양여자대학교 비서인재과



강성현 / 채널A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

- ①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최근에는 체력이 부족한 것을 느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 ③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박정아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 ① 콘텐츠사업본부의 구성원으로 빠르게 스며들겠습니다. 알려주시는 것을 열심히 배우고 수행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② 요즘은 멜론 차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출퇴근하며 어떤 음악을 들을지 차트를 보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들었던 노래는 Billie Eilish의 bellyache입니다.
- ③ 서울여성 금융정보과